

# 공공의료 현장에 귀 기울여

### 도·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필요성 세미나... 의료격차 해소·공공의료 확충 논의

전라북도과 남원시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이용호의원실과 함께 '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논의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와 관련해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은 "지방의료원은 '착한 적자'를 안고 적정수준의 공공의료를 수행해야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베르스 사태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체계를 재구축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 의료과장은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될 남원지역 인근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10개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방문 발굴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보건 의료를 총괄하는 관리자의 고민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현재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되고 있는 PA간호사(진료 보조인력) 피해 사례와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의사 인건비 상승으로 지역병원 경영이 어



전라북도과 남원시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이용호의원실과 함께 '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려워지고 있어 지방 공공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로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분야전문가인 박찬병 서울 서북병원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를 통해 공공의료마인드를 가진 의사가 양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남원시

는 의료취약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2022년 남원 개교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2로드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설립 근거 법률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산림재해 예방시설 추진 '총력'

#### 161억 원 투입 사방댐 등 사방시설 70개소 조성

#### 우기철 이전 조기 완료로 산림재해 예방 효과 극대화

#### 파충류 등 이동통로 반영 생태·환경친화적 공법 시공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사방사업을 추진해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최근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의 대형화, 빈발화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61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등 70개소를 설치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방사업이란 산사태취약지역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생활권 인접

지역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과가 적기에 발휘되도록 우기철 이전 6월말 완료 목표로 도내 14개 시·군에 70개소(사방댐 35개소, 계류보전 23km, 산지사방 11ha 등)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사방댐 및 사방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

비할 것이며, 점검결과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하여 준설 및 보수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사방시설은 재해예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간계곡에 회색의 콘크리트와 돌 공작물을 시설하여 시각적 거부감과 생태·경관적으로 아쉬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시설물 주변 수목식재 및 양서·파충류 등의 이동통로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고해중 소장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심화됨에 따라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 우기 전 사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방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를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방문이 지난 18일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일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 새만금신공항, 정부 예타 조사 면제 가능성

#### 이낙연 총리 '적극 검토하는 중'

전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아 입주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전북 현안사업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전북도가 원하는 것이 새만금신공항 사업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구축사업 두 가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머지않은 시기에 전북도민에게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며 "이달 안에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시사했다.

이 총리는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조성에 속도를 올릴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입주하도록 매력적인 기반시설 지원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미 농식품원재료공급센터와 기능성식품제조센터 등이 예정돼 있으며 국제식품포터리스 개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기업들의 운·오프 판로확대를 도울 계획"이라며 "식품벤처기금과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의 다각화와 다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익산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익산과 나아가 전북의 산업이 단출하다"며 "이제라도 바뀌어야 하며 익산이 선두에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립익산박물관과 익산 문화도시조성 등 익산시의 협의를 지원하겠다"면서 "익산은 백제 왕도의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는 품격 높은 관광산업을 키울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콘텐츠개발사업과 안전보호용복합제품산업 등도 전북도·익산시와 함께 협의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전북도 건설공사 누계 수주액 전년 대비 상승

#### 새만금사업 등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율 증가 효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201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도내 건설공사 발주 건수는 1,409건으로 전년(1,387건) 대비 1.6% 증가했고 발주 누계액은 전년 대비 2조 5,291억원에서 3조 5,592억원으로 40.7% 증가, 도내 지역업체의 수주 누계액은 전년 대비 1조 1,180억원에서 1조 4,104원으로 2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주 누계액이 큰 폭으로 상승된 주요 요인으로는 새만금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1.2공구: 3,394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1~8공구: 1조4,813억),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2공구, 6-1공구: 1,081억) 총 12건의 대형공사의 발주(총1조9,288억)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영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전북 도내업체의 수주액 증가 주된 요인은, 협회와 전북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 확대(기술형인력 → 종합심사제까지 포함) 의견을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적극 수용해 준 결과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1.2공구)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2공구, 6-1공구) 등 대형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최소10%, 최대40%까지 크게 확대되어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의 출범과 새만금개발청 군산이점으로 새만금 용지 공공매립, 주요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새만금 개발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주될 2023년 부안 세계잼버리 대회 부지 조성공사,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등 대형 새만금 사업에 전북 도내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